

한화큐셀골프단, 제2의 도약 노린다

한화골프단 간판바꾸고 출범... 올 시즌 선수 라인업 공개 KLPGA 통산 8승 이정민 영입

2011년 창단한 한화골프단이 올해부터 한화큐셀골프단으로 간판을 바꾸고 제2의 도약을 노린다.

한화큐셀은 4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출범식을 열고 2018년 선수 라인업 등을 밝혔다.

세계 태양광 산업 1위 기업인 한화큐셀은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KLPGA),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활동 영역과 일치하는 시장이다.

골프단 후원을 통해 브랜드 효과와 마케팅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고 회사 이미지와 제품 브랜드 파워 역시 골프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건이다.

한화골프단은 2011년 창단 이후 소속 선수가 LPGA 투어 11승, KLPGA 투어 8승, JLPGA 투어 2승, LET 1승 등 총 22승을 달성했다. 특히 작년에는 한·미·일 투어에서 무려 10승을 합작하며 한 시즌 최다 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인경(30)이 LPGA 투어 메이저 우승 포함 3승, 베테랑 지은희(32)는 8년 만에 투어 우승을 추가했다.

한국계 노무라 하루(26)도 1승을 올렸다. KLPGA 투어에서는 김지현(27)이 시즌 첫 승과 함께 3승을 거두며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다.

일본에서는 이민영(26)이 2승과 함께 상급랭킹 2위에 올라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치렀다.

한화큐셀골프단은 LPGA에서 활동 중인 김인경, 지은희, 노무라 하루, 신지은(26), 벨리 코다(20)를 비롯해 JLPGA에서 뛰는 이민영, 윤채영(31), KLPGA 김지현 등과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한화큐셀골프단출범 미디어 설명회에서 선수단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민, 김지현, 이민영, 윤채영 선수.

2018년도 함께 한다. 여기에 KLPGA 투어 통산 8승을 기록 중인 이정민(26)을 새롭게 영입해 총 9명으로 선수단을 꾸리게 됐다.

2010년 1부 투어에 데뷔한 이정민은 첫 해부터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2015년에는 3승과 함께 대상포인트 2위, 상급랭킹 4위에 오르며 전성기를 보냈다. 이정민은 지난해 톱10에 한 차례 올랐을 뿐 상급랭킹 81위로 부진했지만 한화큐셀은 가능성을 보고 모자를 씌우기로 했다.

더욱 탄탄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 한화

큐셀골프단은 2017년 이상의 성적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유일한 외국인 선수이자 제시카 코다의 동생인 벨리 코다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남성우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시장 지위 강화를 위해 스포츠를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주요 시장과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과 한화큐셀은 독일분데스리가 함부르크SV, 이탈리아 세리아A 유벤투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과 함께 굵직한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을 벌여왔다.

한화큐셀은 계열사 단독으로 2017~2018 시즌부터 독일 분데스리가 RB라이프치히의 메인 스폰서십을 진행하고, 지역별 인기 스포츠를 부분 후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망 선수 영입과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골프단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도 활발히 펼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KBO리그, 역대 가장 빠른 3월 24일 개막

2018시즌 KBO리그 정규시즌은 역대 가장 빠른 3월 24일 개막한다.

KBO는 2018년 KBO 정규시즌 경기일정을 확정해 4일 발표했다.

2018 KBO 정규시즌은 3월 24일 개막해 팀 당 144경기, 팀 간 16차전(홈 8, 원정 8)씩 총 720경기가 열린다.

올해 정규시즌 개막은 1982년 KBO리그 출범 이후 가장 이르다.

원년인 1982년과 2010년 3월 27일 개막이 가장 빨랐다.

올 시즌 개막이 앞당겨진 이유는 8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대표팀을 파견하면서 KBO 정규시즌 일정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KBO는 각 팀의 핵심 선수들로 대표팀을 구성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로 했다.

대표팀 차출에 따른 전력 불균형과 관중 감소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그 중단을 결정했다.

개막전은 2016년 팀 순위 상위 5개팀의 홈 구장에서 한다는 편성 원칙에 따라 잠실(삼성-두산), 문학(롯데-SK), 광주(KT-KIA), 고척(한화-넥센), 마산(KG-NC) 등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최된다.

KBO 정규시즌 토요일 개막은 2015년 이후 3년만이다.

2016년 최종 4위였던 LG는 잠실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두산이 2016년 우승팀으로 홈 개막전을 거행하게 돼 2018 시즌을 원정으로 시작하게 됐다. 6위팀 SK가 홈 개막전을 치른다.

개막을 원정으로 치르는 LG 롯데, 한화, 삼성, kt 등 5개 팀은 개막 다음 주 주말 3연전인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홈 개막 시리즈를 소화한다.

2018년 경기일정은 구단별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주말과 공휴일 홈 경기수, 월별 홈 경기수 등을 최대한 고려해 균등하게 편성했다.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LG(두산전), KIA(NC전), SK(롯데전), 삼성(한화전), kt(넥센전)의 홈경기로 열린다.

KBO 올스타전은 7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시스

EPL 22라운드 첼시·아스날, 혈투 끝 무승부

첼시와 아스날이 4골을 주고받는 혈투를 벌였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4일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2라운드에서 2-2로 비겼다.

초반부터 뜨거웠다. 전반 7분 아스날이 알렉시스 산체스의 프리킥으로 위협하자 3분 뒤 첼시가 에당 아자르의 왼발슛으로 반격했다.

아스날은 전반 16분 산체스가 패린 샷이 양쪽 골대를 모두 때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6분 뒤 알렉산드르 리카제트의 왼발슛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선제골은 아스날이 가져갔다. 후반 18분 톰 홀딩의 패스가 수비수에 맞고 굴절되자 잭 윌셔가 왼발로 마무리했다.

첼시는 4분 뒤 균형을 맞췄다. 아자르가 자신이 얻어낸 패 널티킥을 직접 차 넣었다.

기세가 오른 첼시는 후반 30분 마르코스 알론소의 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패배 위기에 몰린 아스날을 구한 선수는 에도르 베에라이다. 후반 추가시간 경합 중 흐른 공에 오른발을 갖다 대 동점골을 기록했다.

첼시는 승점 46(14승4무4패)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47·14승무3패)에 1점 뒤진 3위에 머물렀다. 아스날(승점 39·11승8무5패)은 6위다.

/뉴시스

두산 떠난 니퍼트, kt행... 100만 달러 계약 합의



메디컬 테스트 통과 후 계약 체결 예정

최장수 외국인 선수 더스틴 니퍼트(37)가 kt 위즈 유니폼을 입게 됐다.

kt는 4일 전 두산 베어스 소속 외국인 우완 투수 더스틴 니퍼트와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연봉 포함 총액 100만 달러이다.

2011년 두산에 입단한 니퍼트는 7시즌 동안 185경기 출전에 1115%이닝을 던지며 94승 43패 평균자책점 3.48 탈삼진 917개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다승(22승), 승률(0.880), 평균자책점(2.95) 등 3관왕을 차지하며, 정규

시즌 MVP와 KBO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역대 외국인 투수 최다승(94승)과 최다 탈삼진(917개) 기록을 갖고 있다.

kt는 4일 니퍼트에 대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한 후 이상 없이 통과되면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니퍼트가 kt와 계약을 체결하면 KBO 역사상 최초로 8시즌을 뛰는 외국인 선수가 된다.

6승을 추가하면 역시 역대 첫 번째 외국인 100승 투수가 된다.

kt는 당초 영입을 추진했던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잔류나 일본 진출을 결정해 영

입이 지연되고 있었다.

스프링캠프 합류 등 차질 없는 시즌 준비와 적응을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작년에 함께 했던 돈 로치를 포함해 KBO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니퍼트가 팀의 전력 상승에 가장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영입을 결정했다.

임종택 kt 위즈 단장은 "구위나 이닝 소화력 등 에이스 투수로서 역량뿐 아니라 KBO 리그 적응력과 인성, 성실성 등이 검증된 니퍼트를 올 시즌 외국인 투수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 본인이 kt에서 뛰고 싶다는 의지를 전하며 왔고, 리그 정상급의 경기운영 능력과 탈삼진율 등을 고려할 때 올 시즌 kt 선발전의 주축으로서 팀 성적 반등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